

蘇聯의 東北亞戰略*

李 相 禹**

I. 序 論

II. 蘇聯의 世界戰略과 東北亞

III. 東北亞 戰略의 目標

IV. 戰略實踐手段과 能力

V. 結 論

I. 序 論

蘇聯은 美國과 더불어 世界의 霸權을 겨루는 超大強國이다. 美國이 추구하는 “自由民主主義秩序의 普及을 통한 世界平和”에 對抗하여 “全世界的 次元의 社會主義革命을 통한 世界平和秩序”를 이룩하겠다는 共產革命의 宗主國이며, 또한 世界最強을 자랑하던 美國의 軍事力에 맞서는 軍事超大強國으로서 世界의 모든 國家들을 同時에 위협할 수 있는 世界的인 霸權國家이기도 하다.

蘇聯은 이미 19世紀後半, 러시아帝國때부터 強大國중의 하나로 世界政治秩序에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1904年의 日·露戰爭으로 「아시아의 強國」임을 보여주었고, 1917年의 볼셰비키革命을 거쳐 共產國家가 된 이후 다시 第二次世界大戰을 통하여 유럽에서의 對獨戰과 東北亞에서의 對日戰을 통하여 유럽과 東北아시아의 情勢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強大國임을 立證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만하여도 蘇聯은 世界情勢에 큰 영

* 이 論文은 1984年 10月 16日부터 23日까지 臺北에서 열렸던 第5次 韓中學術會議에서 발표되었던 것을 補完한 것임.

** 本研究所 所長

향을 미치는 여러 強大國중의 하나라는 정도였지 지금과 같은 世界的 次元의 超大強國은 아니었다. 第2次大戰後 40年間 꾸준히 軍事力量을 增加하여 음으로써 이제 蘇聯은 世界最強의 軍事大國으로 成長하였다.

蘇聯은 불셰비키革命 이후 國際共產主義運動을 主導하면서 이미 全世界의 次元의 共產革命을 宣言하고 나서서 世界 모든 反全體主義人民들에게 潛在의인 威脅으로 登場하였으나 自國領域外에서의 革命을 推進할 能力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威脅을 모두 그렇게 重要視하지 않았었다. 이러한 蘇聯에 대한 輕視가 美國으로 하여금 安易하게도 蘇聯을 聯合國의 一員으로 받아들여 對獨戰 및 對日戰에 참여시키도록 하였으며, 그 結果로 蘇聯이 自國領域外에 全東유럽과 中國, 北韓등지에서 支配權을 갖도록 만들어, 蘇聯의 帝國主義基盤을 造成시켜 주는 愚를 범하게 하였다.

1980年代로 접어들면서 蘇聯의 威脅은 이제 潛在의인 狀態를 벗어나 現實的인 것으로 되어버렸다. 世界의 어떤 나라도 蘇聯의 意圖를 힘으로 막을 수 없는 狀態가 되었으므로 이제 蘇聯은 一定한 水準의 희생만 감수하기로 결심하면 어떠한 對外目標도 成就할 수 있는 世界的 霸權國家가 된 것이다. 美國과의 全面的인 核戰으로 自己破滅을 할 可能性을 除外한다면 蘇聯은 어떠한 軍事모험도 政策手段으로 할 수 있는 地位를 확보하고 있다.

蘇聯은 이러한 威脅의인 힘을 바탕으로 政治的, 外交的, 經濟的 攻勢를 펴고 있다. 가장 損失이 적고 利得이 큰 方法으로 世界制霸의 構想을 점진적으로 實踐에 옮겨가고 있다. 蘇聯이 당장 무모하게 美國과 全面戰을 벌이는 직접적 도전을 하리라고는 豫想할 수 없으나 착실하게 쌓아가는 軍事優位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世界制霸의 戰略을 積極化하리라 보며, 이에 따라서 蘇聯의 挑戰은 지금까지의 修辭的 次元을 넘어 곧 구체적인 行動으로 나타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東北亞는 蘇聯의 世界戰略에 있어서 아주 重要的 意味를 가지고 있다. 東北亞는 유럽과 함께 美·蘇가 직접 對決하고 있는 곳이며, 또한 蘇聯이 美國과의 마지막 對決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處理해야 할 中共과 日本이

라는 두 強大國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世界의 다섯개의 힘의 中心이라 할 美國, 蘇聯, 西歐, 中共, 日本중 네개가 集中되어 있는 곳이라는 點에서 蘇聯이 이곳에서의 支配權을 장악하지 않고는 對美挑戰이라는 決勝進出을 할 수 없는 중요한 戰域이 바로 東北亞이다.

또한 東北亞는 太平洋과 東南亞 및 南아세아, 그리고 멀리 라틴아메리카로 進出하기 위하여 거쳐 나가야 할 出口이기도 하다. 蘇聯이 第三世界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東北亞의 進出口을 安全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東北亞는 다음번 단계의 蘇聯戰略展開에서는 重要戰域으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NATO 障壁으로 西유럽을 통한 進出이 어렵게 되어감에 따라 蘇聯은 NATO에 準하는, 同盟組織화된 防禦柵이 없는 東北亞에서 世界進出을 시도할 可能性이 높다.

東北亞에는 世界에서 가장 緊張이 높은 南北韓間의 對決이 있어 蘇聯의 모험을 誘發할 수 있는 與件이 주어져 있다. 蘇聯의 衛星國家로 出發하여, 아직도 蘇聯과 軍事同盟을 맺고 있는 北韓과 美軍의 東北亞駐屯 거점이며 美國 후원으로 獨立하여 美國과 相互防衛條約을 維持하고 있는 韓國사이에 언제라도 戰爭이 발발할 수 있는 緊張이 維持되고 있다. 美國, 中共, 日本 등의 強大國과의 직접 衝突을 피하면서 美國의 威信을 결정적으로 墜落시킬 수 있는 理想的인 場所로서의 韓半島는 따라서 蘇聯의 모험을 誘發할 可能性이 아주 높은 地域으로 꼽히고 있다.

以上과 같은 理由에서 蘇聯의 對美挑戰이 가장 먼저 具體的 行動으로 展開될 可能性이 높은 地域으로 東北亞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最近 몇 年間, 蘇聯이 集中的으로 이 地域에서의 軍事力을 다른 어떤 地域에서보다 급속하게 증강시켜 온 事實들은 이러한 豫測을 더 補強해 주고 있다.

위에서 提示한 蘇聯의 東北亞에서의 積極的 挑戰可能性을 理解하는데 도움이 될 몇가지 事項, 즉 蘇聯의 世界戰略속에서의 東北亞의 意味, 東北亞戰略의 展開方式, 그리고 이러한 戰略實踐을 위한 準備狀況등에 대하여 각각 좀 더 구체적으로 論議해 보기로 한다.

II. 蘇聯의 世界戰略과 東北亞

蘇聯의 膨脹主義는 두가지 힘에 의하여 支持되고 있다. 하나는 帝政러시아 때부터의 帝國主義傳統이고, 다른 하나는 國際共產主義運動이다. 蘇聯의 帝國主義的 膨脹動機는 다른 列強에서와 마찬가지로 安保와 繁榮의 두가지 要求에서 생겨난 것이다. 다른 強大國으로부터 스스로의 安全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自體의 國力을 키워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넓은 地域의 支配가 必要해진다. 또한 自國民의 繁榮을 촉진하려면 他國民을 支配하여 利己의으로 管理할 必要가 있게 된다.

國際共產主義運動은 全世界에서의 社會主義革命을 통하여 世界平和秩序를 구축한다는 마르크스-레닌主義理念에 기초한 理念的 動機인데, 現實에서는 蘇聯의 帝國主義的 膨脹을 正當化하는 名分으로 活用되고 있다.

蘇聯의 이러한 膨脹主義에 대하여 目標, 戰略構想, 그리고 그 戰略속에서의 東北亞의 意味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世界制霸의 目標

20世紀에 있어서 全世界的 次元에서 가장 執拗하게, 그리고 가장 激烈하게 推進되어 온 社會體制改革運動은 蘇聯에 의하여 시작된 共產主義革命運動이다. NAZIS의 第三帝國 建設計劃이나 日本의 大東亞共榮圈 建設計劃은 그 構想의 範圍에 있어서 國際共產主義運動에는 미칠 수가 없었다. 오랜 역사동안 各國의 國家속에서 維持, 發展, 進化시켜왔던 모든 社會體制를 否認하고, 마르크스-레닌主義라는 普遍이데올로기에 따른 프롤레타리아 支配體制를 全世界에 均一하게 實施하겠다는 共產革命의 挑戰은 그 構想의 範圍에 있어서 어떤 先例도 찾을 수 없는 大規模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構想實踐에 대한 共產主義者들의 熱意도 또한 가장 強烈했다. 共產主義者들은 이 目標達成을 위해 戰爭도, 武力蜂起도, 暴力도 그리고

모든 非法의 行動도 가리지 않고 使用해 왔다.

全世界를 對象으로 하는 共產革命運動의 宗主國이며, 企劃者이며 주된 實踐者가 바로 蘇聯이다. 蘇聯은 1917年以來 스스로 世界共產革命의 指導者임과 同時에 “武器庫”임을 自處해 왔으며, 오늘날까지도 世界情勢를 서로 타협할 수 없는 共產主義와 資本主義集團間的 鬭爭이라는 視角에서 보고 있으며, 적어도 公式的으로는 世界共產革命促進을 모든 對外政策의 指針으로 삼고 있다.¹⁾

理念에 기초한 蘇聯의 世界共產革命에 대한 코미트먼트는 설사 이미 形式的인 것으로 變質된 口號에 不過하다 할지라도²⁾ 公式 이데올로기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있는 全體主義體制를 蘇聯이 維持하고 있는 限, 이 이데올로기는 蘇聯對外政策의 基礎가 되며, 또한 모든 行爲를 正當化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蘇聯으로 하여금 世界制覇의 目標을 버릴 수 없게 만들고 있다.

蘇聯의 世界制覇의 設計가 마르크스-레닌主義라는 普遍이데올로기로 着色되어 있다는 點은 아주 重要한 意味를 가진다. 이 理念的 要素는 地理

1) R. J. Rummel 교수는 蘇聯의 全體主義의 意思決定體制를 前提로, 指導者들의 性格과 聲明과 行動을 體系의 으로 分析한 후 다음과 같이 結論을 내리고 있다. 蘇聯은 理念的으로 마르크스-레닌主義 世界觀을 그대로 지키고 있으며 아직도 革命的이며 十字軍의인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는데 특히 (1) 共產勝利를 위한 戰爭은 正當하며, (2) 世界는 對立되는 세력간의 鬭爭場으로 보며, (3) 資本主義와 社會主義間的 葛藤은 妥協不能이고, (4) 資本主義를 敵으로, 그리고 美國을 資本主義의 基盤으로 認識하고 있으며, (5) 革命과 暴力은 共產主義의 最終勝利를 促進한다고 생각하며, (6) 蘇聯을 世界共產革命의 指導者로 自處하고, (7) 共產主義의 擴散과 資本主義의 敗北를 가져올 機會를 利用하고 또한 創造하려 하고, (8) 國際的인 安定을 目標로 보지 않는다는 點을 지적하고 있다. 그의 글,

“Soviet Strategy and Northeast Asia,” *Korea & World Affairs*, Vol. 2, No.1, Spring, 1978, pp. 3~45를 볼 것.

2) 蘇聯은 이미 理念的으로 退色한 帝國으로 轉落했다는 見解도 있다. 例를 들면 Dimitri K. Simes는 “the modern Soviet State bears a closer resemblance to a superbly armed Austria-Hungary than to Nazi Germany”라고 비유하면서 蘇聯共產黨을 “理念的으로 脫色된 위로부터의 壽命에만 盲目으로 순종하는 特權階級”으로 되어버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의 글, “The New Soviet Challenge,” *Foreign Policy*, No.55, Summer, 1984, pp. 113~131을 볼 것.

의으로 멀고, 아무런 直接的인 관계도 없는 地域에서도 同盟國을 發見할 수 있는 利點을 준다는 點에서 蘇聯의 戰略展開에 큰 도움을 주는가 하면, 非共產國家와의 親和는 모두가 暫定的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을 밝히는 것도 되어 蘇聯의 非共產地域에서의 活動을 크게 制約하기도 한다. 1970年代에 高潮되었던 대당뜨분위기 속에서도 蘇聯과 美國과의 關係改善은 오직 蘇聯이 次期攻勢의 利點을 確保하기 위한 術數에 불과하다고 評價받았으며 아무도 蘇聯의 平和共存意志를 믿어주지 않았었다.³⁾

世界共產革命이라는 理念的 動機을 除外하고도 蘇聯은 帝政러시아때부터의 膨脹主義의 政策傳統을 가지고 있다. 蘇聯은 帝政時代에 코카스와 中央아시아를, 그리고 革命後 불틱三國을 이미 帝國의 部分으로 編入했으며, 第二次大戰以後 東歐諸國을 이미 사실상 蘇聯의 部分처럼 만들었다. 蘇聯은 帝政러시아의 膨脹政策에 대하여 非難한 적이 없으며, 共產革命과 전혀 무관한 併呑이었는데도 이를 모두 正當化하고 있다.⁴⁾ 마르크스-레닌主義는 결국 帝政러시아때부터의 蘇聯의 帝國의 膨脹主義를 理念的으로 正當化해주는 道具로 되어버렸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⁵⁾

결국 蘇聯이 世界制霸의 目標을 세운 것은 최소한 理念的 次元에서는 볼셰비키革命에 성공한 1917년부터이지만, 그때는 國際共產主義運動의 成功的인 展開로 各國內의 同調勢力의 힘을 빌어서 그 目標을 이루겠다는 設計에 不過했었다. 蘇聯이 獨自의 힘으로 이 目標을 推進하겠다고 戰略을 세운 것은 第二次世界大戰의 結果로 美國을 除外한 強大國들이 몰락한 이후이며, 특히 獨自의인 核抑制能力을 가지게 된 1970年代 이후가 아닐

3) 蘇聯 스스로가 대당뜨를 戰略的 便宜임을 公開的으로 是認했었다. Leonid Brezhnev 蘇首相은 “.....We make no secret of the fact that we see detente as the way to create more favorable conditions for peaceful socialist and communist construction”이라고 宣言했었다. Brezhnev, “Excerpts from Brezhnev’s Keynote Speech at Soviet Party’s 25th Congress.” *The New York Times*, February 25, 1976. p. 14.

4) Simes, *op. cit.*, pp. 121~122를 볼 것.

5) Simes도 같은 意見이다. *loc. cit.*

가 생각된다. 蘇聯은 30年間 꾸준히 核戰力을 增強시켜온 努力의 結果로 이제 스스로 保有하고 있는 核戰力으로 全世界 모든 國家를 殲滅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世界 어느 나라로부터도 安全을 위협받지 않을 수 있는 充分한 戰爭抑制力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美國을 除外한 어떠한 나라에 依해서도 對外政策展開에서 武力으로 牽制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蘇聯의 軍事的 地位向上이 世界制霸라는 엄청난 目標을 추구할 생각을 하게 하였을 것이다.

아무튼 蘇聯은 理念的인 코미트먼트 때문이든 또는 帝國主義의 意圖에서든 世界支配를 國家目標로 設定하고 있으며 또한 이 目標의 實踐을 可能하게하는 기초적인 軍事能力을 保有하고 있다. 이러한 뜻에서 蘇聯의 挑戰은 이미 潛在的인 막연한 것이 아니고 理實的이며 當面한 것이 되었다.

2. 世界制霸戰略構想

蘇聯의 世界支配戰略은 레닌(V.I. Lenin)의 戰略理論을 기초로 전개되었으며 지금도 그 戰略構想은 변하지 않고 있다.⁶⁾ 레닌戰略의 要諦는 政治·外交·經濟·心理·軍事力을 配合하는 總力戰(total war)과 長期的인 時幅을 가진 漸進的 段階戰略(stage-by-stage strategy), 最小戰鬪(minimum military engagement), 그리고 周邊先攻戰略(periphery-first strategy)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레닌戰略思想은 絕對戰概念(the absolute war concept)을 강조하던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의 영향을 받은 西歐戰略思想과는 전혀 다르며, 오히려 孫子の 戰略思想과 더욱 가깝다. 특히 孫子の 間接戰, 最小戰의 原則, 政治心理戰 등은 거의 그대로 레닌戰略에 反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레닌戰略思想을 기초로한 蘇聯의 世界革命戰略의 核心을 정리하

6) 蘇聯의 世界革命戰略構想에 대한 詳論은 다른 글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李相禹, 「韓國의 安保環境」第2輯, 서울: 考試研究社, 1980, 第13章 “蘇聯의 軍事政策變化趨勢와 軍事力 現況” pp.196~237을 참조할 것.

면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⁷⁾

第一段階：革命基地로서의 蘇聯의 社會主義建設

第二段階：防禦基地로서의 周邊國共產化

第三段階：「周邊」인 第三世界共產化

第四段階：主敵(美國)의 側近인 西歐·日의 中立化

第五段階：孤立된 主敵의 屈服強要

蘇聯은 第二次大戰直後인 1940年代末까지 第二段階戰略을 成功的으로 完結시켰으며 1970年代末까지 第三段階戰略 수행에 全力을 기울였다. 對 美데탕뜨戰略은 바로 蘇聯이 第三段階戰略을 展開하는데 있어서 有利한 環境을 造成하기 위하여 推進했던 政策이다. 데탕뜨는 核戰時代에 美·蘇가 雙方自殺의 悲劇을 豫防하자는 너무도 明白한 課題를 목표로 시작된 緊張緩和政策이었다. 美國과 蘇聯은 如何한 경우라도 核武器를 政策手段으로 쓰지 않는다는 點에 서로 同意하였고 이에 따라 戰略武器制限會談(SALT)이 진지하게 進行되었다. 美國은 蘇聯이 緊張緩和에 同意해 준 것을 환영하면서 美·蘇間의 協力범위를 넓혀 共存의 기초를 다지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蘇聯은 그렇게 단순하게 데탕뜨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蘇聯은 ① 美國으로부터 技術을 導入하고 食糧 등 物質을 확보하며, ② 第三世界에서의 革命支援과 관련하여 美國의 妨害를 줄이고, ③ 美國의 東歐 등에 대한 民主化 壓力을 排除하는 것을 목표로 데탕뜨를 받아들였다.⁸⁾

蘇聯은 1970年代末까지 進행된 第三段階戰略展開에서 상당한 成果를 거두었다. 앙골라 등 아프리카의 많은 新生國에서 據點을 확보하였고, 라틴 아메리카에도 몇 군데 주요 據點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으며, 越南戰을

7) 孫子は “可勝在敵 不可勝在己”라 하였다. 즉 우선 지지않도록 自己를 굳히고 나서 敵이 지도록 狀況을 造成해가는 것이 이기는 方法이라 하였다. 蘇聯의 段階的 戰略은 이러한 孫子の 戰略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8) Joseph Fromm, “Back to the Cold War?” *U.S. News & World Report*, January 26, 1976, pp. 22~26. 參照.

越盟의 勝利로 종결시켰으며, 美國에 대한 核戰力劣勢를 만회하는데 成功하였다.

1980年代에 들어서서 蘇聯은 서서히 第四段階戰略의 實踐을 준비하고 있다. 西歐諸國과 日本, 中共을 겨냥한 SS-20 中距離誘導彈의 유럽 및 東部시베리아 配置등으로 이제 이 地域의 脫美威脅을 시작하고 있다. 만일 第四段階戰略을 成功的으로 成就한다면, 그 때는 蘇聯은 사실상 世界制霸의 꿈을 이룩할 수 있게 된다. 모든 友邦으로부터 孤立된 美國은 蘇聯이 支配하는 世界속에서 끝까지 抵抗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蘇聯은 “不戰而屈人之兵”의 最善의 戰略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3. 第四段階戰略에서의 東北亞

孫子は 謀攻篇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百번 싸워 百번 이기는 것이 제일 나은 것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敵의 軍隊를 굴복시키는 것이 제일 나은 것이다. 그러므로 싸움에서 最上의 것은 敵의 戰略을 공격하는 것이고, 次善策은 敵을 그들의 同盟國에서 떼어내어 孤立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나은 政策이 敵의 軍隊를 공격하는 것이다”(……百戰百勝, 非善之善也.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也. 故上兵伐謀, 其次伐交, 其次伐兵.)

蘇聯의 第四段階戰略의 核心은 위에서 引用한 孫子の 主張을 그대로 反映하여 美國에 대한 伐謀와 伐交 즉 美國의 對應戰略을 無用하게 만들며, 美國의 同盟國을 떼어내는데 두고 있다고 본다.

美國의 對蘇戰略은 對蘇封鎖政策이다. 第二次大戰直後, 美國은 對蘇軍事優位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全面的인 軍事封鎖戰略을 展開했다. 蘇聯 주변의 友邦國들을 軍事同盟으로 묶어 蘇聯의 膨脹을 직접 막으려는 戰略이었다. 그 일환으로 美國은 西歐에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를, 中東에 CENTO, 東南亞에 SEATO, 그리고 東北亞에 美·日, 韓·美, 美·中(臺灣) 同盟體制를 구축하였었다. 그러나 이러한 全面封鎖를 長期的으로 維持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어, 美國은 既存의 包

國戰略을 核攻擊能力 중심의 抑制戰略(deterrence strategy)으로 轉換하였다. 이 새 戰略의 核心은 蘇聯의 如何한 挑戰에 대하여도 蘇本土를 核戰力으로 직접 攻擊한다는 決意와 準備로 蘇聯의 膨脹을 事前에 抑制한다는 것이었다.

蘇聯의 核戰力增強으로 美國의 核威脅이 無意味해진 1970年代에 와서는 美·蘇間의 核凍結을 뜻하는 데탕트를 美國이 수락할 수 밖에 없게 되어 美國의 核抑止效果는 자연히 無力해졌으며, 이제 美國은 優勢한 蘇聯의 在來式戰力에 對應할 아무런 能力도 없게 되었다. 新冷戰이 시작된 1980年代에 들어서서 美國은 不足한 戰力을 同盟國의 힘으로 補充하여 蘇聯의 膨脹을 막으려는 새로운 戰略을 세우게 되었다. 유럽에서는 西歐諸國의 防衛負擔 增強으로, 그리고 東아세아에서는 日本 및 中共과 反蘇軍事同盟體制를 구축함으로써 蘇聯의 膨脹을 牽制하려 하고 있다.⁹⁾

이러한 美國의 構想은 東北亞에서 美·日·中共을 잇는 反蘇軸을 굳혀가는 努力으로 나타나고 있다. 美國은 지난 30年 동안 維持해온 美·日 安保協力體制를 더욱 強化하면서 日本의 實質的인 軍事的 寄與를 높일 것을 要求하고 있으며 그 一環으로 日本周邊 1,000海里 범위의 海上交通路(Sea Lines of Communication) 保護責任을 日本에 맡기려고 하고 있다. 또한 美國은 1972年의 美·中共 데탕트를 基點으로 中共과의 關係를 계속 好轉시키면서 最近에는 制限된 범위지만 中共에 軍援을 주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美國의 構想에 따라 日本과 中共間의 관계도 向上되고 있다.

蘇聯은 東北亞에서의 美國의 對蘇防衛網構築 노력과 관련하여 一次的으로 이를 파괴하는데 重點을 두게 될 것이다. 蘇聯은 中共과 日本에 軍事

9) 美國의 對蘇戰略變化에 대하여는 다른 글에서 이미 詳論한 바 있다. 李相禹, 「韓國의 安保環境」第1輯, 서울: 書香閣, 1977, 第11章 “美國의 國防政策과 外交政策의 不調”; 李相禹, 「美·蘇新冷戰의 意味와 韓國統一環境」, 서울: 西江大 東亞研究所, 1983, 및 Sang-Woo Rhee, *Security and Unification of Korea*, 2nd Edition, Seoul: Sogang University Press, 1984, Chapter 20, “Implications of Eroding Super-Power Balance in East Asia: A South Korean Perspective” 등을 볼 것.

的 威脅을 높이는 一方, 外交의 및 經濟的 實利를 約束함으로써 美國과의 同盟에서 離脫하여 中立의 態度를 갖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또한 美·日·中共의 東西軸을 깨는 南北軸 形成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즉 北韓과의 關係를 改善하고 越盟을 토대로 東南亞에서의 영향력을 向上하여 東部시베리아에서 赤道에 이르는 反美的 南北軸 形成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蘇聯의 第四段階에서의 主된 目標인 美國에 대한 「伐交」工作에서는 西歐보다 東北亞가 主된 決戰場이 될 可能性이 많다. 그 첫째 理由는 유럽에서는 헬싱키協定 이후 現狀維持에 대한 暫定的 東西間 合意가 이루어져서 일단 安定이 되어 있으므로 이곳에서 蘇聯에 有利한 變化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과 달리 東北亞에서는 現狀維持에 대한 어떠한 合意도 이론적이지 않아 蘇聯의 行動은 훨씬 自由스럽다.

두번째로, NATO의 結束이 強해서 蘇聯은 西歐의 脫美를 시도하기에는 아직 힘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비해 東北亞에서의 美國의 反蘇同盟體制는 훨씬 취약하며 또한 流動的이다. 東北亞에는 NATO와 같은 集團의인 防禦條約體制가 形成되어 있지 않다. 美·日, 美·中共 및 韓·美의 二者關係의 集合에 不過한 對蘇防禦體制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中共은 蘇聯과 理念을 같이하는 共產國家이므로 反共國家들인 日本 및 韓國과는 쉽게 協調體制를 構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韓·日간의 關係도 直接的인 軍事協力을 할 수 있을 정도로 親密하지 않다. 더구나 韓半島內에서의 南北韓간의 緊張은 美國과 中共과의 關係를 쉽게 瓦解시킬 可能性을 내포하고 있다. 韓半島內의 局地均衡構造는 中共 및 蘇聯과 軍事同盟을 맺고 있는 北韓을 一方으로, 그리고 美國과 軍事同盟을 맺고 있는 韓國을 他方으로 하는 集團均衡體制로 되어 있다. 즉 이 局地均衡에서는 美國과 中共이 서로 敵對關係에 놓여 있다. 그런데 地域均衡에서는 美國과 中共, 그리고 日本이 一方이되어 蘇聯을 他方으로 하

는 均衡構造를 이루고 있어 이번에는 美國과 中共이 한편이 되어 있다. 이러한 局地均衡과 地域均衡 사이의 構造不一致는 全體의인 東北亞安保體制를 不安하게 만들고 있다. 中共은 局地均衡에서는 美國의 敵으로, 그리고 地域均衡에서는 美國의 友邦으로 二重의 役割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東北亞는 中共의 政策에 따라 쉽게 混亂으로 빠져들 수 있게 되어 있다.

以上과 같은 이유에서 蘇聯은 第四段階戰略展開의 主戰場으로, 유럽보다 東北亞를 擇할 可能性이 아주 높다. 더구나 다음과 같은 東北亞의 特性이 蘇聯의 모험을 助長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東北亞에서의 美的 反蘇同盟體制는 同盟國들이 모두 바다를 건너 連結되어 있는 海洋同盟(ocean alliance)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同盟國間의 海上交通路(SLOC)에 대한 美國의 支配權이 前提되지 않으면 同盟體制로서의 機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蘇聯이 美國과 同盟國間의 海上交通路를 차단할 수 있는 充分한 海軍力만 保有한다면 東北亞에서의 美國의 反蘇同盟體制를 붕괴시키기는 아주 容易하게 되어 있다.

둘째로, 相對的 弱小國인 韓國에 대하여 集中的으로 攻略할 경우 東北亞에서의 美國의 反蘇防禦網은 비교적 적은 희생으로 파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韓國은 좁은 地域이다. 따라서 큰 努力없이 蘇聯이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韓國은 地政學的으로 美·日과 中共을 잇는 線에 위치한 하나의 「고리」로서 이 「고리」를 끊으면 蘇聯은 쉽게 太平洋의 出路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美國이 명예를 절고 지켜온 韓國의 喪失은 美國의 威信을 떨어뜨려 世界的 次元에서의 對美信賴度를 墜落시키는 充分한 象徵性을 가지고 있어 心理戰的 次元에서도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다. 더구나 韓國에 對해서는 北韓을 앞세운 代理戰(proxy war)을 할 수 있기 때문에 蘇聯은 美國과 직접 충돌을 하지않고서도 美國에 打擊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다.

세째로, 中共은 비록 蘇聯과 對決關係를 유지하고 있으나 같은 共產國家로서 中共의 指導者交替가 이루어질 경우, 다시 和解할 수 있는 可能性

이 아직 남아있다.¹⁰⁾

이상과 같은 點을 고려한다면 蘇聯이 第四段階戰略展開에 있어서는 東北亞를 유럽에 先行하여 決戰場으로 선택할 可能性은 아주 높다고 판단된다.

東北亞는 蘇聯의 接境地帶이면서도 韓國戰 以來 지난 30年間 安定을 누려 왔다. 蘇聯은 이 地域에서 어떠한 挑戰도 하지 않았었다. 日本에 對해서도 積極的 威脅을 가하지 않았으며, 韓國에 대해서도 어떠한 威脅도 가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美國의 이 地域에서의 支配權에 대해서도 挑戰한 적이 없었다. 또한 反對로 이 地域의 現狀을 유지하려는 어떤 合意도 要求한 적이 없다. 蘇聯은 이 地域에서의 行動을 一切 留保해 왔었다. 蘇聯은 다만 이 地域에서 海軍力을 主軸으로 하는 막강한 軍事力을 건설하는 데만 努力을 集中해 왔다.

蘇聯의 行動留保는 東北亞의 無視에서 온 것이 아니다. 蘇聯의 段階的 戰略에서 順序가 오지 않았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蘇聯이 第三段階戰略에서 第四段階戰略으로 나아가게 되면 東北亞는 美·蘇의 角逐場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時期는 앞으로 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蘇聯은 이제 이곳에서 美國과 맞설 수 있는 軍事力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Ⅲ. 東北亞戰略의 目標

蘇聯의 東北亞戰略의 目標를 정리하면 ① 美國이 日本과 中共과 함께 구축하고 있는 反蘇同盟軸을 破壞하는것 ② 和解를 통한 中共의 中立化 ③ 日本의 對美一邊倒外交를 止揚시키고 再武裝을 防止하는것 ④ 韓半島에서 進出據點을 確保하는 것 등으로 要約할 수 있다.

10) 이 點에 관해서는 이미 다른 글에서 詳論했다. 李相禹, “中·蘇和解可能性: 80年代의 展望”. 「中國問題」(漢陽大學校中國問題研究所刊), 第4卷2號(1979年10月)를 볼 것.

각각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보기로 한다.

1. 美國의 反蘇同盟軸 破壞

美國은 太平洋을 넘어 東北亞에 進出하여 蘇聯의 接境에서 蘇聯의 進出을 막고 있다. 美國은 西部太平洋에 同盟體制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進出해 있다. 美國은 1951年 9月 8日에 對日講和條約과 함께 締結한 美·日相互防衛條約¹¹⁾을 토대로 日本에 軍隊를 駐屯할 權利를 確保하고 있고, 1953年 10月 1日에 締結한 韓·美相互防衛條約에 따라 韓國과 그 周邊에 美軍을 駐屯시킬 權限을 確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韓國에서는 韓·美聯合司令部를 設置하여 美軍將校가 司令官職을 맡도록 함으로써 韓國軍全體의 作戰指揮權까지 美國이 管掌하고 있다.

美國은 1972年의 닉슨(Richard Nixon)大統領의 北京訪問 이래 中共과 의 關係改善에 努力하여 1979年 1月 1日 兩國間의 關係를 正常化하고 같은날 美·中華民國間의 相互防衛條約은 1年後에 파기할 것을 宣言함으로써 中共과는 準同盟의 關係를 維持하고 있으며, 같은 해 4月 3日 中共은 既存의 中·蘇友好同盟相互援助條約의 不延長을 蘇에 通告함으로써 中共은 蘇에서 美로 同盟轉換을 公式化 하였다. 美·中共間의 軍事協力은 점진적으로 進行되어 1980年 5月 29日에는 美國이 中共에 대하여 輸送機, 헬리콥터, 防空레이다裝置의 販賣를 發表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雙方關係를 토대로한 美國의 東北亞進出은 西유럽에서의 NATO와 같은 集團防衛體制와는 달리 그 基盤이 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美國의 同盟國間, 즉 韓·日, 日·中共, 및 韓·中共間의 協調體制가 되어 있지않아 反蘇防禦網으로서는 상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11) 이 條約으로 美國은 日本內에 軍隊를 駐屯하는 權利를 얻고 또한 他國이 日本內에 基地를 못가지게 하였으며 日本防衛에 美軍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이 條約은 1960年 6月 23日 「美·日相互協力 및 安全保障條約」으로 改正되었는데 새 條約에서도 “日本의 安全에 寄與하고, 아울러 極東에서의 國際平和 및 安全維持에 寄與하기 위하여” 美軍이 日本에 駐屯하는 權利는 계속 認定되고 있다. (第6條)

蘇聯의 東北亞戰略에서의 第一次目標은 美國의 이러한 同盟體系를 破壞하여 美國의 據點을 없애므로써 美國을 西部太平洋에서 축출하는 것이다. 만일 蘇聯이 美國을 東北亞地域에서 철수시키는데 成功한다면 蘇聯의 第四段階戰略, 즉 美國을 그의 同盟國에서 隔離시키는 戰略은 半以上 成功하는 셈이다. 美國의 支援없는 狀態에서는 東南亞의 어떤 反蘇國家도 蘇聯의 進出에 抵抗할 能力을 가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2. 中共의 中立化

中共이 蘇聯과 理念鬭爭을 벌여 점차로 敵對關係를 發展시켜온 것은 1960年代 以後이다. 그 전까지는 東北亞에서 蘇聯의 가장 가까운 友邦國家였다. 蘇聯과 中共間에는 1950年 2月 14日에 締結된 「中·蘇友好同盟相互援助條約」이 있었고(1980年 폐기), 같은 共產國家로서 韓國戰 등에서 함께 鬭爭을 支援했었다.

文化革命 10年(1966—1975)간의 中共內部混亂中の 非正常的인 對外關係를 論외로 한다면 中共은 사실상 蘇聯과 敵對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특히 毛死後의 中共은 이러한 認識아래서 서서히 蘇聯과의 和解를 시도하고 있다.¹²⁾ 中共은 1982年 9월에 있었던 中國共產黨 第12次全黨大會에서 國際共產主義運動에 대한 復歸를 시사하였으며, 蘇聯의 브레즈네프(Leonid Brezhnev) 共產黨書記長도 같은 해 3月 24日 中共이 共產國家임을 認定하였으며 中共和 蘇聯間的 理念差는 그리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臺灣

12) 中·蘇和解의 相互必要性和 可能性에 대하여는 註 10)의 本人의 글 이외에 Edmund Lee, "Beijing's Balancing Act" *Foreign Policy* No.51, Summer 1983, pp. 27~46. 을 볼 것. 이 글의 筆者가 中共學者임을 留意할 것. 이 글에서 Lee는 ".....Beijing now understands that Moscow's increased military activities in Asia are aimed not primarily at the PRC but directly at the United States and its Asian allies and, indirectly, at Western Europe"이라고 밝히고 있다. 中共에 대한 蘇聯의 宥和的 態度에 대하여는 辛承權, "中·蘇對立: 蘇聯의 立場을 중심으로," 「中·蘇研究」(瀋陽大中蘇研究所刊), 第8卷 第2號, 1984年 여름, pp. 163~181 을 볼 것.

이 中共의 一部임을 承認하고, 經濟·科學·文化交流을 다시 提案하였다.¹³⁾ 그리고 실제로 中共과 蘇聯은 外務次官級의 會談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蘇聯은 一次的으로 中共과의 媾和를, 그리고 窮極의 으로는 同盟回復으로 發展시키려 하고 있다. 만일 蘇聯이 이 目標을 達成한다면 美國의 東北亞에서의 位置는 決定的으로 弱化될 것이며 蘇聯의 對美戰略은 값진 또 하나의 勝利를 記錄하게 될 것이다.

3. 日本의 再武裝防止

蘇聯의 對日目標은 日本의 핀란드化(Finlandization)이다. 그러나 美·日間の 結束이 強하고 日本의 反蘇感情이 높은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당장 日本을 脫美親蘇化시키려는 무모한 努力은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日本에 對하여 시베리아開發參與의 實利등을 제공하는 一方, 強力한 軍事的 壓力을 加하여 日本이 反蘇再武裝을 포기하도록 誘導하려 할 것이다.

만일 蘇聯이 日本으로 하여금 美·日防衛條約을 폐기하게 하고, 非武裝中立을 宣言하게 할 수만 있다면 東北亞에서의 蘇聯의 第四段階戰略은 완전히 成功하게 된다.

4. 韓半島에서의 進出據點確保

蘇聯의 太平洋進出口에 韓半島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韓半島는 美·日·中共의 反蘇包圍網의 하나의 고리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고리중에서는 가장 弱한 고리로 되어 있다. 따라서 蘇聯의 東北亞戰略展開에서 韓半島의 支配權장악이 빠질 수 없는 目標가 된다. 蘇聯은 이미 19세기末 帝政러시아때부터 太平洋進出口로 韓半島에 據點을 確保하려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半島南端의 馬山港과 鎮海를 海軍基地化하려고 努力하였다.

蘇聯은 第二次大戰 직후인 1950년에 一次的으로 北韓을 앞세운 代理戰

13) *Pravda*, 1982年 3月 25日字, 辛承權, *op.cit.*에서 轉載.

을 벌여 韓半島의 支配를 시도하였다가 美國의 介入으로 失敗한 經驗이 있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蘇聯은 韓半島에 관한한 어떠한 行爲도 취하지 않았다. 現狀變更의 시도도 現狀安定의 企圖도 하지 않았다. 韓半島는 蘇聯의 對外政策展開에서 「留保」의 對象으로 되어 왔다. 美國이 직접 軍隊를 駐屯시켜 지키고 있어 美國과 決戰을 각오할 때까지는 손을 대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¹⁴⁾

蘇聯의 行爲留保는 韓半島의 戰略的 價値가 적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美國이 對美戰略에서 韓半島의 戰略的 價値를 아주 높이 認識하고 있다는 點은 바로 蘇聯의 이 地域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對한 反映이라 할 수 있다.

蘇聯은 美國의 勢力이 弱화되어 蘇聯의 韓半島支配에 抵抗하지 못할때 行動을 개시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時期는 美國의 東北亞同盟體系가 瓦解될 때가 될 것이다.

그러나 蘇聯은 반대로 美國의 同盟體制붕괴를 促進하기 위하여 韓國을 攻擊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美國과의 직접 衝突을 피하기 위하여 北韓을 앞세운 代理戰을 敢行하게 될 것이다.

蘇聯의 韓半島支配는 東北亞에서의 勢力均衡을 크게 바꿀 것이다. 蘇聯은 中共에 대한 包圍網構築을 完成하게 되고 日本에 대한 壓力을 加重하는데 아주 便利한 位置에 서게되고 美國의 軍隊駐屯據點을 없애는 效果를 얻게되며 太平洋 및 東南亞에 아무런 不便없이 進出할 수 있는 與件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非共產世界에서의 美國의 威信을 크게 失墜시켜 美國의 指導力量을 弱화시키는 政治心理的 效果에서 큰 勝利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以上과 같은 理由에서 第四段階의 東北亞地域戰略에서 蘇聯은 韓半島의 支配權確保를 主要戰略目標로 삼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14) 李相馬, “蘇聯의 膨脹主義政策과 韓半島: 80年代에 새 安保負擔,” 「共產圈研究」, 1980年 4月號 參照.

Ⅳ. 戰略實踐手段과 能力

蘇聯은 東北亞에서의 第四段階戰略目標達成을 위하여 政治, 外交, 經濟, 軍事의 모든 手段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手段의 效果的 적용을 위하여 不斷히 能力向上에 努力하고 있다.

1. 非軍事의 手段과 能力

蘇聯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理念體系를 융통성있게 해석함으로써 異端的인 社會主義勢力도 包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蘇聯은 한때 異端視했던 毛澤東思想과 金日成主體思想도 共產主義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包容하려 하고 있다. 蘇聯은 中共과의 和解를 위한 政治外交的 努力을 꾸준히 펴고 있으며, 北韓과의 關係改善에도 積極성을 띄고 있다.¹⁵⁾ 蘇聯의 이러한 政治·外交的 努力은 특히 中共의 反蘇政策을 緩和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만일 蘇聯이 一連의 政治外交的 努力으로 中共과 北韓을 다시 集團同盟體制로 묶는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東北亞에서의 美國과의 對決에서는 決定的 優位를 確保할 수 있게 된다. 中共과의 協調下라면 北韓을 앞세운 對韓國代理戰은 언제라도 可能할 수 있게 되며, 日本의 再武裝防止 壓力行使에서도 效果를 높일 수 있게 된다.

蘇聯은 中共과 日本에 對하여 經濟的 利得을 政策手段으로 쓰는데 있어서는 相當한 制約을 느끼고 있다. 先進工業國인 日本에 대해서는 크게 惠澤을 줄 수 있는 能力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中共에 대해서도 美國이나 日本, 西方先進工業國과 競爭하여 經濟的 利得을 供與할만한 能力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經濟的 手段 使用의 制約때문에 蘇聯은 그 동안 東北亞에서의 美國과의 對決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다. 中

15) 1984年 5月부터 6월에 걸친 金日成의 蘇聯, 東歐諸國의 訪問은 蘇聯의 이러한 態度變化로 可能해진 것이다.

共의 實用主義政策은 美國의 資本과 技術導入의 誘惑에 끌려 美·蘇에 대한 對等外交로 發展되어 왔고, 日本과의 關係改善에서도 美·日間の 經濟的紐帶라는 엄청난 힘에 눌려 더 以上 進展을 못보았던 것이다.

앞으로도 蘇聯은 政治·外交의 手段 活用에서는 수확을 期待할 수 있을 지 모르나 經濟的 手段使用에서는 實效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2. 軍事의 手段과 能力

蘇聯이 東北亞에서의 第四段階戰略展開에서 가장 依存하고 있는 手段은 軍事의인 것이고, 또한 能力에 있어서도 가장 강한 것이 軍事力量이다. 蘇聯은 지금까지도 軍事力量中心으로 東北亞戰略을 展開해 왔지만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 豫想된다.

蘇聯이 戰略展開手段으로 活用하려는 軍事力量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戰略核戰力으로, 美國의 核抑制能力과 相殺시켜 美國이 蘇聯의 軍事行動을 抑制하지 못하도록 하는 手段으로, 그리고 中共 및 日本 등이 反蘇行爲를 하지 못하도록 抑制하는데 쓰기 위하여 開發되고 있으며, 둘째는 美國의 同盟體制가 海洋同盟(ocean alliance)인 점을 고려하여 海上交通路(SLOC)를 차단하는데 쓸 海上軍事力이고, 셋째는 局地的으로 戰略據點을 攻擊占領한다든가 特定地域에 직접 武力威脅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在來式戰力이다. 이 세가지 戰力에 대하여 간단히 評價하기로 한다.¹⁶⁾

(1) 戰略核戰力

蘇聯의 戰略核戰力은 潛水艦에 싣고 있는 SLBM(Sea Launched Ballistic Missiles),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과 LRINF(Longer-

16) 여기서 사용한 統計는 美國防省 發刊, *Soviet Military Power*, 3rd edition, 1984 와 *The Military Balance* 1983~1984 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부분적으로 다음 자료를 補完하였다. James A. Kelly, "The Soviet Threat in Asia" *Asia-Pacific Defense Forum*, Spring, 1984.

Range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등 陸上發射彈導彈 및 爆擊
 機에 실고 있는 核爆彈 등 세가지로 構成되어 있다. 現在의 蘇聯戰略核戰
 力 水準은 다음과 같다.

(A) SLBM

잠수함수 : 80 척

유도탄수 : 981 기

SS-N-5 45

SS-N-6 368

SS-N-8 292

SS-N-17 12

SS-N-18 224

SS-N-20 40

* 美 : 잠수함수 34 척, 유도탄수 616 기

(B) ICBM 과 LRINF

ICBM : 총 1,398 기

SS-11 520

SS-13 60

SS-17 150

SS-18 308

SS-19 360

* 美 : 1,033 기

LRINF : 총 602 기

SS-4 224

SS-20 378(극동에 135 기 배치)

* 美 : 없음

(C) 爆擊機

총	850 기
Backfire	235
Bison	45
Bear	115
Badger	316
Blinder	139

* 美: B-52G/H 241 기, FB-111 56 기

計 297 기

蘇聯의 戰略核戰力은 美國과의 核對決에서 지지 않을 정도며, 美國의 核威脅을 無力化하는데 充分하며, 이 基準으로 본다면 이미 目標을 達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蘇聯은 領土가 美國보다 크고 攻擊目標의 散在度가 美國보다 크기 때문에 攻擊吸收能力에 있어서 美國보다 훨씬 강하며, 이 點까지 고려한다면 蘇聯은 美國과의 核相殺를 目標로 한 第一領域의 軍事手段은 갖춘 셈이다.

核戰力과의 관계에서 留意할 것은 LRINF의 開發이다. 蘇聯이 保有하고 있는 中距離彈道彈의 核心은 射程 5,000 km의 SS-20(각 3 MIRVs)인데, 이 彈道彈은 美國本土를 공격할 수 없는 武器로서 NATO地域과 中共, 日本을 對象으로 하기 위하여 특별히 만들어낸 것이다. 이 SS-20중 135기는 이미 極東軍區에 配置되어 있으며 그 射程範圍는 東亞細亞에서는 全東北亞와 필리핀, 印度支那半島까지 포함된다. LRINF는 美國國民들을 자극하지 않고 美國同盟國들을 威脅함으로써 美國과 同盟國間의 關係를 복잡하게 만들려는 政治心理戰의 效果까지 고려하여 만든 것이라고 보여진다.

(2) 海上戰力

蘇聯이 第四段階戰略展開에서 특히 東北亞戰域에서 重點을 두고 增強시키고 있는 戰力이 美國支配下의 西部太平洋 海上交通路 차단을 위한 海上戰力이다.¹⁷⁾

蘇聯은 원래 海軍이 거의 없던 나라였다. 특히 太平洋함대는 아주 소규모였다. 第二次世界大戰 직후인 1946年에는 蘇聯의 太平洋艦隊는 순양함 2척, 구축함 11척, 잠수함 17척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1983年 現在 蘇聯 太平洋艦隊는 함정 약 820척(全體海軍 2,765척), 총 162萬톤(全體 602萬톤)의 대규모 함대로 成長하였다.¹⁸⁾ 美國이 이 地域에 航空母艦 3척을 포함한 약 65척의 함정, 65萬톤을 배치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면 蘇聯海軍의 威力을 짐작할만하다.

蘇聯의 太平洋艦隊는 다음과 같은 戰鬪艦들을 保有하고 있다.²⁹⁾

核잠수함(SSBN)	28척
其他잠수함	92척
主力戰鬪艦	89척
小型戰鬪艦	225척
上陸艦	20척
補助艦	80척

戰鬪艦중에는 Kiev級航空母艦 Minsk號와 KARA級 미사일巡洋艦, KRIVAK級 미사일驅逐艦 등 新型艦艇이 많다. 海軍航空機는 약 440機 정도이다.

17) 西部太平洋海上交通路에 대한 蘇聯威脅에 대하여는 다음 資料를 볼 것. Tun-hwa Ko and Yu-ming Shaw, eds., *Sea Lane Security in the Pacific Basin*, Taipei: The Asia and World Institute, 1983.

18) 日本防衛廳編, 「日本の防衛」, 1983年版 p. 38.

19) *The Military Balance* 1983~84.

蘇聯의 4個艦隊(北海, 黑海, 볼티해, 太平洋) 중 太平洋艦隊는 傳統的으로 가장 적었으나 지난 70年代부터는 優先權이 부여되어 現在는 最大의 艦隊로 되었으며 巡洋艦, 驅逐艦, 攻擊잠수함은 각각 全體海軍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太平洋艦隊는 對潛능력과 艦隊攻擊能力에 있어서 탁월하여 海路차단에 무서운 威力을 가지고 있는데, 蘇聯海軍의 創設者인 고르쉬코프(Sergei Georgiyevich Gorshkov) 元首는 수년전에 公開發의으로 SLOC 차단을 既存의 海軍任務중에서 특히 강조한 바 있다.²⁰⁾

蘇聯은 지금도 계속 美國에 앞서 海軍力을 증강해가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로 수년간 더 나아가간다면 美國과 西部太平洋同盟國들과의 사이의 海上연결은 물론, 日本이나 韓國 등을 外部로부터 完全孤立시킬 수 있는 能力을 保有하게 되어 이들 同盟國들은 蘇聯의 직접 위협하에 들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美國의 西部太平洋同盟體系는 根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다.

(3) 地上戰鬥能力和 上陸戰能力

蘇聯은 世界最強의 地上軍을 保有하고 있다. 兵力 180萬에 五個地域軍, 194個 現役師團을 保有하고 있는 蘇聯陸軍은 그 중에서 極東軍區(Far East Theater)에 52個師團(戰車 7, 自動車化 45) 47萬名을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戰鬥航空機 2,100機(全蘇聯 8,290機)가 이 地域에 배치되어 地上軍作戰을 支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蘇聯太平洋艦隊는 1個師團規模의 海兵을 保有하고 있으며 최근 Ivan

20) Gorshkov는 “.....the disruption of the ocean line of communications, the special arteries feeding the military and economic potentials of the enemy countries, has continued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of the Navy’s missions.” Office of the Chief of Naval Operations, Department of Navy, the U.S.A., *Undersatanding Soviet Naval Developments*, 4th edition, 1981에서 再引用. 蘇聯海軍의 公表된 7個任務는 ① 戰略核攻擊 ② 對潛戰 ③ 對航母戰, ④ 制海權確保 ⑤ SLOC 차단 ⑥ 上陸戰 ⑦ 平時의 外交手段 등인데 이에 대한 설명은 Tun-wha Ko, “The Soviet Pacific Fleet,” in Ko & Shaw, *op.cit.*, pp. 87~98을 참조할 것.

Rogov 級 大型上陸艦 등을 추가하고 Minsk 號 등의 航母를 保有하게 됨에 따라 陸續地域 아닌 地域에서의 師團規模 地上作戰을 할 수 있는 能力을 갖게 되었다.

蘇聯이 極東地域에 방대한 地上戰力을 집결하는 것은 여러가지 意味를 갖는다. 中共과의 對決때문에 兵力增強이 불가피 했다는 說明도 可能하지 但 中·蘇間의 戰爭을 생각할 수 없는 現在에도 계속 地上軍을 增強한다는 것은 東北亞地域에서의 武力使用을 計劃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유럽과 달리 蘇聯에 對한 威脅의인 地上軍이 存在하지 않는 東北亞에서 地上軍戰力을 증강하고 上陸戰能力을 不斷히 向上시킨다는 것은 蘇聯이 第四段階戰略展開에서 “象徴의 對外 武力介入”을 할 地域을 東亞에서 選擇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蘇聯의 現在의 武力介入能力으로 어떤 地域에서 모험을 감행할 수 있을까? 北韓과 協同으로라면 韓國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東南亞의 어떤 나라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制限된 上陸戰能力으로는 日本을 대상으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V. 結 論

蘇聯의 膨脹主義는 어느 線에서 멎을 수 있는 限界的인 것이 아니다. 장에만 없으면 온 世界를 席捲할 때까지 뻗어가도록 되어있는 生理를 가진 것이다. 自制는 바랄 수 없고 他律的으로 막지 않을 수 없는 흐름이다.

蘇聯의 膨脹主義는 두가지 原動力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帝政러시아때부터 내려온 帝國主義的 支配意慾과 世界共產革命完遂로 社會主義的 世界平和秩序를 구축하겠다는 國際共產主義的 革命이데올로기가 그 두 推進力이다. 러시아帝國主義的 要素는 蘇聯人民들의 支持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共產革命이데올로기가 名分을 세워주고 있기 때문에 蘇聯의 膨脹主義는 自制되기 힘들게 되어 있다.

蘇聯은 第二次世界大戰 終末과 더불어 美國을 主敵으로 하는 世界支配를 위한 鬭爭을 끈질기게 전개하고 있다. 이 鬭爭의 初期段階에서는 美國의 壓倒的 힘에 눌려 뜻대로 膨脹主義를 실천에 옮길 수 없었다. 40年代末의 트루먼 doktrin, 50年代의 鄧萊스의 封鎖政策 등은 힘의 劣勢에 놓인 蘇聯의 膨脹主義를 묶을 수 있었다. 蘇聯은 그 동안 自國의 國力을 蓄積하면서 새로운 地域의 共產化보다는 이미 共產化되어 自國支配下에 놓여있는 地域, 즉 東歐地域 등의 支配를 굳히는데 주력해 왔다. 브레즈네프 doktrin은 바로 이러한 蘇聯政策의 公式態度闡明이었다.

蘇聯은 30年의 노력끝에 東歐地域에 대한 支配權을 美國을 비롯한 西歐諸國이 공식으로 양해하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헬싱키條約은 바로 이러한 蘇聯의 유럽 境界線을 인정하는 西歐世界の 일종의 諒解文書 같은 것이다.

蘇聯은 30年間의 苦戰 끝에 美國과 맞먹는 軍事力을 갖추는데 성공했다. 美國의 對蘇抑制能力의 核心은 核報復能力이었다. 蘇聯은 스스로의 核戰力增強에 힘을 기울여 드디어 恐怖의 均衡을 이룩하는데 성공했으며 그 결과로 美國과 核戰回避約束으로서의 SALT, 直接對決回避約束으로서의 베탕트관계를 合意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제 蘇聯은 美國의 蘇聯本土에 대한 軍事報復可能性에서 解放된 狀態에서 在來式軍事力을 활용하여 膨脹主義의 실천에 임하게 된 것이다. 앙골라, 소말리아, 캄보디아 등지에서 代理戰을 거쳐 드디어 아프가니스탄을 직접 침공하기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蘇聯은 美國牽制力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유럽에서의 피곤했던 對西方對決에서 解放되었다. 이제 中共의 장애만 弱화시킬 수 있으면 美國本土를 제외한 모든 領域에서 힘이 닿는 限 그들의 膨脹主義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위치에 이를 것이다.

蘇聯은 이제 牽制力을 잃은 美國에 대하여 한 段階 높은 挑戰을 시도하려 한다. 즉 美國의 가장 가까운 友邦인 西歐와 日本을 中立化시키고, 美國의 對外支配據點을 하나씩 붕괴시켜 美國을 孤立시키려 한다. 이를 爲

하여 蘇聯은 戰略核戰力外에 엄청난 海軍戰力과 在來式地上戰力을 증강시켜왔다. 美國이 支配하던 海洋에서 海路遮斷能力을 갖추으로써 美國의 海洋同盟體系를 무너뜨리고, 증강된 地上戰力으로 美國의 海外據點을 하나씩 공격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段階의 戰略展開에서 蘇聯은 東北亞를 主戰場으로 삼으려 한다. 西歐의 단결된 힘보다는 東北亞의 흩어진 힘을 뚫고 나가기 쉽기 때문이다. 中共을 政治的 手段으로 中立化시키고, 日本을 軍事威脅으로 中立시키고 韓半島에서 局地戰을 벌인다면 蘇聯은 所期の 目的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蘇聯의 東北亞에서의 膨脹은 이제 막연한 걱정이 아니다. 現實化될 수 있는 威脅이다. 比較적 조용하던 東北亞 情勢가 蘇聯의 挑戰으로 強大國間 世界制霸戰의 主戰場이 될 것이다.

〈英文要約〉

Northeast Asia in Soviet Strategy

Rhee, Sang-woo

Soviet expansionism has been driven by two distinct driving forces: the Slavic imperialism inherited from Czarist Russi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st movement pursued by the Soviet communist leaders since the Bolshevik Revolution of 1917. The Soviet Union has pursued imperialistic designs for her security and prosperity, and therefore it will not be easy for her to give up the tendency, since both needs are not to be fulfilled easily.

The Soviet design for world revolution consists of five distinct phases. In the first phase, the Soviets concentrated their efforts to transform their country into a powerful revolutionary base for world socialist revolution. In this phase, therefore, the Soviet Union did not take any aggressive actions beyond her boundary. In the second stage, the Soviets tried to create buffer zones around their homeland by turning the adjacent states into their satellites. Then followed the third phase, when the Soviets expanded their influence in remotely located third nations, the peripheries of world politics.

In the fourth stage, the Soviets will try to isolate the United States from its allied nations through Finlandization of them. Then will come the last phase when the Soviets will push the United States into a corner and force it to capitulate.

Now the Soviet Union is moving from the third to the fourth phase. With accumulated military power, the Soviet Union is increasing pressures on U.S. allies to take a neutral stance. With quantitatively superior nuclear war capability the Soviet Union attempts to nullify the nuclear deterrence capability of the U.S., with rapidly

growing naval power she tries to disrupt sea lines of communication among the U.S. allies, and with dominant conventional military power she threatens small American allies adjacent to her territory.

Northeast Asia is the most vulnerable target area for the Soviet threats. Geographically the area is closer to the Soviet Union, and the U.S. is far beyond the hostile ocean. Also, in this area an effective NATO-type collective defense system is lack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nnot be harness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checking Soviet expansion. Japan will not take any further active measures to stop Soviet moves in Northeast Asia unless the Soviet Union directly threatens her. In the Korean Peninsula, the Soviet Union retains an ally, North Korea, which can be utilized for a proxy war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the symbol of the U.S. determination to deny communist expansion in the area.

It is thus highly probable that the Soviet Union will choose Northeast Asia for her next major thrust.